



녹용의 한방임상효능

Clinical Effects of Velvet Antler in Oriental Medicine



안덕균/자생생명공학연구소 소장

<마지막 회>

24. 사상의학에서의 녹용활용

흔히들 사상의학에서 녹용이 가장 잘 맞는 체질인은 태음인(太陰人)이라고 한다. 극단의 사상의학 선봉자들은 태음인이 아닐 때에 복용하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반박하고 싶다.

절대 체질은 100% 명확하게 구분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완벽한 분류자가 없다는 것이다. 녹용을 투여해서 복통이 생긴다든지 혹은 설사나 때로는 살이 찌서 견딜 수 없는 증상, 때로는 간기능 장애를 초래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의사 또 유사의료업자들이 체질분류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의 명확한 증상에 따른 처방구성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을 녹용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괴변이요, 실수가 되는 것이다.

녹용은 체질에 상관없이 증상에 맞는 처방구성을 온전하게 할 때에 어느 병증이든지 상용할 수가 있게 된다.

녹용이 태음인에게는 모든 처방으로만 통용되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질인에게도 음양과 허실, 열과 한증을 변별해야 효력을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태음인도 열증(熱症)이 있는 병증에는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을 가미하고 한증(寒症)에는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을 쓰며 보통 따뜻한 온성(溫性)체질인에게



는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을 가미해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효과를 얻게 한다. 그리고 소음인(少陰人) 열증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투여해서 발열 증상을 해소시키면서 병증에 치료를 돕고 냉증(冷症)에는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을 상고해서 쓰며, 소양인(少陽人)은 비교적 열이 많고 잘 흥분해서 활달하고 영민하므로 양격산화탕(涼膈散火湯) 제재로 열기를 내려서 진정효과를 유도하면서 치료하고, 소양인도 몸이 차고 냉증을 호소하는 증상에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이 주제가 된다.

그리고 태양인은(太陽人)은 모과, 포도, 송화, 송엽, 다래, 오가피, 가시오가피가 가미된 녹용처방을 투여하면 이것이 예방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서도 탁월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녹용은 모든 체질인에게 정확한 진단과 잘 처방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치료효과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5. 혈당하강반응

내분비치료에 권위있는 교수가 필자에게 녹용을 먹고 난 후 환자의 혈액에서 혈당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험들에서는 녹용이 척추신경세포조직의 당효소분해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효

소 분해와 연관되어지는 각종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미자, 지골피, 천화분 등의 배합처방들을 당화시키므로 당뇨환자에게서 매우 유의한 임상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수십년의 당뇨질환으로 기력이 쇠잔한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치료제가 녹용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환자는 녹용과 그 배합처방을 복용하면서 생활에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6. 뇨로결석치료

국내에서는 이와같은 증상에 많이 활용된 임상효과가 없으나 중국에서 녹각상(鹿角霜) 30g을 장기 복용하고 결석이 용해되었다는 임상보고가 있다. 여기에 금전초, 해금사, 석위, 목통 등이 배합되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고대문헌에서 석림(石淋)치료가 바로 결석 용해인 것이다.

27. 만성간염 치료

실험적으로 간염을 유발시킨 흰쥐에게서 간기능 회복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만성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항상 피로와 작업능률 저하, 활동력 감소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때에 만성간염 치료에 빈용되는 쌍화탕제제에 녹용을 배합해서 사용하면 회복기능이 현저하



므로 피로회복, 기력상승, 운동량 증가 현상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배합처방과 확실한 진단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녹용제제라고 말할 수 있다. 쌍화탕(雙和湯)에 오미자, 황정, 녹용은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28. 유뇨 치료

본인 스스로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자주 보는 증상을 유뇨라고 한다. 요즘에 뇨실금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것은 콩팥기능허약이나 감퇴, 그리고 방광근육의 수축작용이 부족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하복부의 냉감으로 발생하거나 계절이 추워지는 때에 빈발한다.

녹용과 오미자를 1일 3회 공복에 각각 10g씩 복용하면 10일 후부터 소변조절 능력이 탁월하게 된다. 만약 기운이 차서 오는 소변 빈삭증에는 육계 4g, 과고지 12g을 배합하면 그 치유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29. 백혈병, 빈혈, 산후빈혈

녹용이 조혈기관에서 혈액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보혈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빈혈, 외과출혈 후 빈혈, 산후 빈혈 등에 탁월한 반응을 보이게 한다. 그리고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런 병증에는

녹용의 용량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면서 당귀, 천궁, 숙지황, 원육 등의 배합을 조절, 보혈 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할 때에 치료반응이 신속성은 물론이고 회복기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30. 신경쇠약

녹용과 신경쇠약과는 무관한 것 같아도 비신(脾腎)의 기능이 모두 감퇴되어 일어나는 신경쇠약에 유효하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이 많으면서 잘 놀래고 꿈도 많고 불안증상을 호소하는 증상에 화를 내면서 망상을 이야기하는 증상에 녹용을 귀비탕(歸脾湯), 온담탕(溫膽湯) 등에 배합해서 복용케하면 신기한 반응을 보이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너그러워지면서 병증이 해소된다.

또, 심하게 어지럽고 눈에서 별꽃을 보고 괴물체를 보는 증상에도 효력이 높다.

31. 신허요통(腎虛腰痛)

콩팥기능허약으로 허리뼈에 힘이 없고 눌러주면 시원하고 따듯한 감을 느끼면서 은은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에 녹용 단방으로 가루내어 환을 만든다음 농도가 낮은 술로 복용하면 콩팥기능이 항진되면서 효력을 얻게 된다. 녹용 배합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이 유효하다.



이 때에 두충을 가미하면 오래된 요통과 힘이 없는 증상에도 효력이 높다. 허리가 차고 은은한 통증을 호소할 때에는 부자와 배합해서 환약으로 장복하면 잘 치유되지 않는 신허 요통에 속효성을 나타낸다. 신허 설사, 오래된 이질에도 유효하다.

32. 모든 질병의 예방

녹용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장수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나 여기에 사향, 당귀, 산수유, 목향, 칩향 등을 배합해서 백병불생(百病不生)하는 효력도 얻게 하는 처방이 한의임상에서 가장 고가로 여기는 공진단(供辰丹)이다. 이것은 사향으로 강심작용을 돕고 당귀가 보혈작용을 하면서 산수유가 신양(腎陽)을 녹용과 같이 증강시키므로 여러 종류의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높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허약해서 늘 기력이 남보다 딸리는 것을 느끼고 나날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환자 자신이 느낄 때에 녹용대보탕은 신통한 효력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녹부탕(鹿附湯)은 사람의 원기와 정액과 혈액이 모두 고갈되어 기력상실은 물론 어지럽고 식사를 적게 하면서 기운을 차릴 수 없이 나약해지는 증상에는 녹용에 부자가 가미된 처방을 투여한다. 녹용은 신음(腎陰)부족에 현저한 반

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에서 나타나는 수족의 냉증, 복부와 하복부의 단전부위, 남자의 음경, 음낭 그리고 여자의 자궁이 차서 대하가 지속되고 임신을 못하면서 초겨울만 되어도 추워서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현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처방의 효력이다.

증익귀룡환(增益歸茸丸)은 본래 신장기능허약으로 정액이 부족하고 신양부족 증상을 나타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병증에 신체를 강건하게 이끌면서 면역기능을 왕성하게 하므로 장수에 이르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명처방들이다.

맺는말

녹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체의 신장기능허약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아이들에게는 성장과 발육, 지혜를 넘치게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질병예방효과가 탁월하다. 그리고 성인에게는 선천적인 기운이 쇠잔해서 일어나는 근육과 골격의 무력증상 개선, 보혈작용 증강효과, 노화억제와 성욕개선 반응, 심장 기능 활성화, 자유기의 억제 반응과 면역 기능활성화로 오래 장복하면 영년익수에 이르게 하는 자연 치유제이다. **한국의약**